

월요광장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야만의 시간에 사람다움을 생각한다

문제는 오직 한 가지라는 것이다. 즉, 사람의 사람다움이 왜 중요한가를, 왜 사람에게 지켜야 할 것이 있는가를 묻는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은 완벽하기는커녕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감정적이고 때로는 더 비열하다. 권력욕과 시기·질투에 끌려서 판단력을 잃기도 한다. 하지만 이 영웅들은 사람 사이에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고민한다. 그래서 실수는 할지언정 사람다움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거나 모욕하는 일은 없다. 특히 그리스의 아킬레우스와 트로이의 헥토르 이야기는 사람다움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 준다.

아킬레우스와 헥토르는 운명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려야 하는 관계다. 헥토르는 아킬레우스대신 전투에 나온 아킬레우스의 친구를 죽였다. 아킬레우스는 친구를 위한 복수를 위해서 피하던 전투에 나섰고 헥토르는 트로이 왕위를 계승할 왕자이자 총사령관으로서 멸망해 가는 조국을 위해서 싸워야만 했다. 하지만 분노의 화신이 된 아킬레우스를 이길 수 없었다. 결국 헥토르는 죽어가면서 아킬레우스에게 자신의 시신을 ‘개가 뜯어 먹지 않게 해 달라’며, “고향으로 돌려보내 트로이인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죽은 나를 화장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애절한 부탁을 한다.

하지만 아킬레우스가 이 부탁을 들어 주지 않았고 결국 헥토르는 “그대에게 신들의 노여움이 내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둔다. 그레도 분이

풀리지 않은 아킬레우스는 죽은 자에게 더 큰 치욕을 주기 위해서 헥토르를 전차 뒤에 거꾸로 매달고 성 주변과 죽은 친구의 무덤 주위를 돈다. 이를 두고 그리스의 신들은 아킬레우스가 “무심한 대지를 욕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죽은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곧 사람의 근본을 저버린 것이라는 의미다.

죽은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킬레우스를 찾아가던 헥토르의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죽인 그 ‘무시무시한’ 손에 입을 맞추며 간절하게 애원한다. “아킬레우스! 신을 두려워하고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하여 나를 동정하십시오. 나는 그분보다 더 동정받아 마땅하오. 내 자식들을 죽인 사람의 얼굴에 손을 내밀고 있으니 말이요.” 아버지의 이런 애절함과 용기를 ‘동정심 없는’ 아킬레우스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다.

마침내 두 사람은 함께 큰 소리를 내며 통곡하였고, 짐승처럼 날뛰던 아킬레우스가 사람의 마음을 되찾게 된 것은 바로 자식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었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를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주었고, 11일 동안 전쟁을 중단하고 장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를 너무나 중요했지만, 죽은 사람에 대한 산 사람으로서의 예와 도리를 다한 것이다. 호메로스는 이 두 영웅의 이야기를 “그래서 위대한 헥토르도 편히 잠들었다”라고 끝맺는다.

헥토르가 들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잠들었다는 이 한 구절이 가슴에 굵은 가시로 박힌다. 삼 년째 돌아오지 못하는 자식들을 잔 바닷바람 속에서 기다리는 또 다른 부모들이 있기 때문이다. 헥토르와 아킬레우스는 전쟁터의 적으로 만나서 죽고 죽일 수밖에 없었음에도, 아킬레우스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비통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분노보다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다운 일이기 때문이다. 아킬레우스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배분 호의는 오직 사람이 가진 보편적인 특성이고, 함께 이피하고 위로하는 것이 사람다움의 본질이다.

하물며 부모들이 재질거리며 여행을 떠났던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에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한가. 그럼에도 우리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고, 너무 많은 돈이 든다고 하지 않았던가? 부모가 자식을 찾는 것이 잘못된 욕심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사람 사는 곳에 사람다움이 없다면 들짐승 같은 야만과 무지가 지배한다. 이 야만의 시간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 우리 스스로 야만에 순응하며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야만의 지배는 불가하다. 이제 이 야만의 시간은 절절하게 끝나야 한다. 집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 모두가 돌아와 편히 잠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부디 너무 늦지 않았기를 기원한다.

社 說

각 당 후보 등록 완료 ‘장미 대선’ 막 올랐다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16일로 끝나면서 17일 0시를 기해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후보들은 앞으로 22일간 각자의 명운을 걸고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게 된다.

각 정당의 후보 캠프에서는 벌써부터 다양한 공약과 함께 로고송을 준비하는 등 표심 잡기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양강 구도 속에 양보 없는 혈투를 벌이고 있는 문재인과 안철수 캠프는 전략에서부터 차별화를 내세우며 지지표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후보 자신은 정책 중심의 포지티브 전략을 구사하고 캠프에서는 프레임 공세 등 네거티브 전략으로 이원화하는 ‘투트랙 전략’에 승부를 걸고 있다. 안철수 측은 호남에서 안풍을 일으켜 자신의 고향인 PK(부산·경남)와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동북(東北) 진군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대선은 지역·이념·세대 등 그동안 대선판을 흔들었던 3대 구도가 무

너지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다. 대선판을 흔든 변수로는 보수층의 전략적 선택 여부와 흔들리는 중도층 표심, 범보수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이슈, 가족 문제로 인한 네거티브 검증 공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변수는 결과에 따라 박빙의 양강 구도를 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양측 캠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수층의 전략적 선택이 이뤄질 경우 안철수 측에 표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범보수 후보인 홍준표와 유승민의 단일화가 이뤄지면 문재인 측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이들 변수 가운데 하나인 네거티브 공세다. 그 어느 때보다 판세를 예측할 수 없는 안갯속 대선이다 보니 선거전이 가열될수록 네거티브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후보들은 앞으로 3주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으로 패어플레이 정신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해야

어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되는 날이었다.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 3년 만에 물으로 올라온 세월호가 거치던 목포신항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해 미수습자들의 온전한 수습을 기원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부활절이기도 한 이날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목포신항에서 미수습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길 희망하는 미사를 봉헌했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단원고등학교가 위치한 경기 안산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제자들의 탈출을 돕다 순직된 ‘스승’의 닳을 기렸다. 하지만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까지 제자들의 탈출을 돕느라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채 희생된 교사 중 두 분이 참사 3년이 되도록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국회의 조속한 입법으로 세월

호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년 계약직 기간제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 배제’ 이유인 ‘비정규직’ 혹은 ‘상시적 공무원 불 수 없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고 또한 상시근무라는 것은 숨진 두 교사 모두 담임이었다는 사실 하나로도 증명되기 때문이다.

기울어 가는 세월호 아래층으로 내려 아이들을 돕다가 숨진 뒤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된 두 교사의 죽음을 어찌 순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당장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국회라도 지난해 발의된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이들의 순직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박 성 남
광주지법 판사

아빠들의 육아휴직

그런 필자에게도 육아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육아휴직이다. 쌍둥이가 17개월에 접어들 무렵 부터 오직 육아만을 위해 1년간 휴직을 했다. 육아와 집안일을 전담하면서 일하는 아내의 외조도 하는 전천후 다기능 가장이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휴직을 했으나 그 포부의 실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외조는커녕 번갈아 치는 쌍둥이의 저저레를 수습하기에도 벅찬 하루하루였다.

쌍둥이의 탄생과 악화되는 어머니의 허리병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육아휴직이기는 했지만, 육아휴직을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혹여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직장생활에서 불이익을 입게 되지는 않을까, 1년이라는 공백이 무뇌회전의 감퇴를 한층 더 가속화시키지는 않을까 등등.

그러나 육아는 현실이었다. 육아휴직 후의 매일은 온전히 쉼 한 하루였다. 쌍둥이가 낮잠을 동시에 자야만 갠신하 얻을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에 육아휴직의 불

이익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막간의 자유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육아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노동이었다. 그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였다. 가계 경제가 걱정될 정도로 인터넷 쇼핑하기, 체중이 걱정될 정도로 초코파이 폭식하기, 노년이 걱정될 정도로 아내에게 바가지 긁기 등등. 일신의 평안을 갈구하던 그때 오직 제목 하나만 보고 인터넷 최저가로 존 스토어트 밀의 ‘자유론’과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구입해 읽기도 했지만, 애석하게도 그 책들은 그치지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야말로 사춘기 때도 겪어보지 못했던 질풍노도의 시기였다.

최근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경험해 봐서 안다. 평일 오후 유모차를 밀며 동네를 배회하면서 ‘나를 한심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의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남성이 주도하는 육

아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남성의 육아휴직에 육아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선입견 또한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 같다. 남성의 육아휴직도 엄연히 법으로 인정되는 권리임에도 권리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앞서 육아휴직의 고충만을 나열했으나 그 기간 동안 사랑하는 쌍둥이의 커가는 모습을 빠짐없이 지켜보면서 쌍둥이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그때 육아휴직을 선택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을 때 범일 가족들이 필자에게 건넨 고생했다든 따듯한 말 한마디는 육아휴직 전에 했던 고민들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남성이 떳떳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서투르지만 육아에 전념하고 있을 전국의 남성 육아휴직 전우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기 고

광주 4·19역사 소홀히 해서야

있다. 광주가 4·19혁명의 진원지임은 1960년 3월15일·16일자 주요 일간신문들이 광주와 마산의 상황을 함께 보도한 것만 내음으로도 입증된다.

2011년 1월21일에는 서울 4·19보훈단체 공묘사회에서 광주 금남로공원에 ‘4·19혁명 진원지’라는 표지석을 건립하고 기념식을 개최해 광주가 진원지임을 뒷받침했다. 당시 기념식에는 이기택 전 4·19공로자회장,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광주시의회 부의장,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대학생과 시민이 군사독재정권과 맞서 싸운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은 수천명의 사상자를 내고 비록 좌절을 겪었지만, 광주는 한국 민주화과정에서 특별한 위상을 갖게 됐고 세계속의 민주화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러한 자랑스런 민주화 역사를 갖고 있는 광주가 그 뿌리인 4·19 역사를 제대로 계승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아무리 위대한 역사일지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진흙 속의 진주와 같다. 위대한 대

한민국 4·19역사의 진원지인 광주에 기념탑 하나 없고 진원지인 금남로공원을 ‘금남로4·19공원’으로 명칭을 보완하겠다면 내음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민헌장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민주항쟁으로 이 땅에 민족 정의와 민주주의를 일으켜세운 빛과 희망의 도시”로 기록되어 있어 광주에는 4·19 민주화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지 의심케 한다. 문화전당 앞 민주의 종에도 5·18민주항쟁과 학생독립운동, 고씨움, 풍물놀이 가 조각되어 있고 4·19는 빠져 있다.

광주 4·19역사는 소외된 채 방치되면서 대부분 시민들은 광주 4·19역사가 존재하는지조차 잘 모른다.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잃고 있는 것이다.

광주의 역사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광주시에서는 2006년 2월7일 기념관·봉안실·사무실을 갖춘 2층(180평) 규모의 4·19혁명기념관을 개관했으나 규모가 너무 협소해 기념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광주 3·15의거와 4·19역사를 관리하기 위해 2013년 10월1일 조례

제4292호를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조례 공포 이후 4·19 역사 관리의 실적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광주 4·19민주화 역사의 계승발전을 위해 최초 발상지인 광주고등학교에 4·19민주혁명 발상지 역사교육관을 3층(연면적 251평) 건물로 지어 지난 3월 완공했다. 이 역사 운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건물만 세워져 있다. 전시 콘텐츠는 예산 확보 후 추진될 예정이다.

4·19민주혁명 발상지 역사교육관이 개관되면 민주화도시 광주의 위상은 물론 도시 정체성과 호남정신이 승화되고 민주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광주에는 불의에 항거한 3대 민중항쟁의 역사가 있다.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과 1960년 광주4·19혁명,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은 광주 정체성과 호남정신의 산실이다.

불의에 항거한 3대 민중항쟁의 역사적 현장을 ‘광주 관광 제1코스’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민주화도시 광주는 다른 시·도와 차별화되고 세계속의 민주화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고,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동물도 눈물을 흘린다.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은 물론 정글에 사는 코끼리와 악어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물이 눈물을 흘린다. 고통에 시달리거나 죽음을 앞둔 동물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나 새끼가 죽었을 때 우는 동물의 모습은 우리에게 묘한 울림을 준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동물도 슬플 때 우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동물학자들에게 따르면 동물의 눈물과 감정 사이의 상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동물도 감정은 있지만 눈물은 슬픔을 느끼거나 슬퍼하는 것이라 기보다는 생리적 현상

‘웃픈’ 눈물

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몸이 긴장한 데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짜이거 기르는 고양이나 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대부분 눈 속의 이물질들을 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고양이가 눈을 깜빡깜빡하며 눈물을 흘린다면, 눈꺼풀이 안구 쪽으로 말리면서 안구를 자극해 생긴 결막염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안구 건조를 막기 위한 생리적 기능

일 수도 있다.

극소수이지만 눈물을 무기로 사용하는 동물도 있다. 인간과 반대로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는 데 쓰기도 하고, 적을 물리치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 수컷 쥐의 눈물에는 암컷 쥐를 유혹하는 성페로몬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북중미사막지대에 사는 빨도마뱀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피눈물을 발사해 적을 무찌른다고 한다.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 먹이를 씹을 때 눈물샘이 놀리면서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는 것인데, 이 눈물이 수분을 보충시켜 먹이를 삼키기 좋게 한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최근 심야 꿈수 사퇴로 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뒤, 다음날 오전 퇴임식에서 눈물을 흘렸다. 인간은 슬플 때나 감동했을 때, 억울할 때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다. 또 남을 속이거나 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도 거짓 눈물을 흘린다. 경남지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눈물을 경남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할 뿐이다.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0-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